

“생활과 수행은 두 길이 아니야”



것은 아닙니다. 작복 그 다음은 수복(修福)의 단계로 가야 하는데, 수복은 내가 비워지는 단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주는 바 없이 주고 베풀 바 없이 베푸는 그런 단계지요. 그 다음이 복을 초월해버리는 초복(超福)의 단계인데, 보통사람의 경지가 아닌 성자의 단계입니다. 작복은 아직 어린이 단계이고 성숙된 불자는 수복까지 갈 수 있어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지만요.”

한 치의 어긋남이 없는 논리 정연한 지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불교를 현대학문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불교학과에 진학했다’는 스님의 그 첫 번째 발원이 빛바래지 않은 채 더욱 탄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기도를 수행의 원리에 맞게 하려면 기도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스님이 생각하는 기도의 일곱 가지 요소를 조목조목 말씀했다.

첫째는 신심인데, 부처님과 보살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기도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대승수행법은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하며 간화선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다. 둘째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예경하고 찬탄하는 ‘자기 비칭’ 즉 헌신이 있어야 한다. 예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행이란 뜻이다.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감사의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해롭게

하고 욕설을 하여도 감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기 실상의 도리를 자연히 깨닫게 된다. 넷째는 널리 공양하고 보시해야 한다. 인색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다섯째는 참회를 통하여 죄업을 소멸시켜야 한다. 여섯째는 일심정근인데, 진실하고 간절하게 일심으로 정근할 때 미혹이 사라지고 청정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일곱째는 발원과 회향이다. 발원을 하되 대승적인 소원이 되어야 하며 기도를 통해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다면 그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돌리겠다는 회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7요소가 <천수경> 속에 다 들어있다고 덧붙인다.

지환 스님은 ‘세상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지, 세상 일 버리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수행만 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생활이 바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견문각지(見聞覺知)가 각각이 아니니 산하대지를 거울 속에서 보지 말라’고 설두선사가 노래했다.

“가령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가 아니라, 이 음식 먹고 우리 고객들이 건강해지기를 발원하면서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판매한다면, 교사는 훌륭한 교사가 되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생활 속의 수행이 되지요. 내가 하는 일들을 수행차원으로 전환시키면 자신의 직업 자체가 수행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

서 금하신 직업은 곤란하지요.”

이처럼 생활수행은 내 직업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전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집중수행은 수행일과를 만들어서 지켜나가야 함을 뜻한다. 지환 스님은 생활수행과 집중수행을 조화롭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사람들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정해서 수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거나 남자들은 술 먹는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집중수행 하는 것을 막는 것보다 잠자는 것보다 더 중히 여겨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자살을 사랑하고 위하는 길입니다.”

무심히 보아도 산세의 자취를 그려낸다고 했던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는 지환 스님의 안목이 꼭 그러하다. “가없는 중생은 자기가 받을 중생이며, 그 중생들은 자신의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광덕 스님의 말씀 받들어 상구보리와 화회중생의 묘용을 두루 발휘하고 있는 지환 스님에게 절하고 싶어진다.

말미 끝에 “세상의 가치란 죽으면 그만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일생 동안 ‘죽으면 그만인 것’에 비한다면 허무하지 않아요?”하고 반문한다. 창 밖에서 우짖던 산새는 어디로 갔는지 밖은 텅 비었고 초록빛이 얼어진 산색(山色) 위로 사위어가는 해가 금빛을 흩뿌리고 있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4> 덕암당 흥덕 대종사

“깜짝 꿈 가운데서/ 티끌 속에 세계 있음 깨달으니/ 꽃은 뜰 속에 있고/ 새들은 창 밖에서 노래한다.”

덕암 스님(1914~2003)의 오도송이다. 스님은 이처럼 큰 것 속에서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것 속에서 큰 것을 보아 크고 작은 것에 걸림이 없었다.

1914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스님은 1927년 해주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유점사 박산 스님께 득도하고, 운암 스님께 계를 받았다. 1935년 일본 동경 대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42년 월원 보계산 심원사 불교강원을 나와 선암사 말마전, 송광사 삼일암에서 각각 1안거를 마치고 서울 법륜사 포교사로 취임했다. 1949년 불교신문사 총무국장, 1950년 동국학원 감사, 1951년

통비 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스님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다.

늘 시장처럼 법석이는 가운데서도 불법중흥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였다. 부처님 성도지에 가서는 70노구를 이끌고 월야정진하였고, 쿠시나가라 열반지에 가서는 통곡하였다.

“어찌 일미 수유(水乳)의 불교가 상좌·대중부로 갈라지고, 마침내 여러 파가 되었다가 중국,



쉬시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는다. 또 한국에 와서는 태고보우 국사의 출생지인 양평 옥천리를 거쳐 보우국사탑이 있는 사나사와 국사께서 친히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열반하신 가평 설악면, 출가지 회암사, 백운암가를 지어 부르셨던 동두천 백운암, 비석이 있는 태고사에 가서는 옛 주석지 중흥사지까지 발견하였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현장을 답사하여 역사적 기록물을 낱말로 확인하시고, “보소. 이태조도 태고 국사 제자로 되어있지 않다. 중간에 사람들이 비석을 절단 내어 그렇지” 하셨다. 과연 비석에는 이성계의 이름도 태고 문도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두 차례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역임하고 종회위원, 교육원장, 태고총림 방장을 지내시면서도 종도들에게 중의 위신을 잃지

쿠시나가라에서 불교의 분열 슬퍼하며 대성통곡 평생 6바라밀 실천...한국불교의 화합·중흥 소망

조계종 재무국장, 1954년 교무부장 등을 거쳐 1959년 월간 <현대불교> 편집위원이 되었다.

스님은 인물이 특출하게 잘 생기고, 위엄이 덕스럽게 태어나, 황금 가사장삼에 비로관을 쓰고 법상에 오르면 경천동지(驚天動地)하듯 세상이 숨죽인 듯 고요해진다. 발자를 한 번 흔들어 눈을 연 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하면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진다.

일찍이 법륜사에서 벼은 적은 있지만 1981년 인도성지를 모시고 간 것이 큰 인연이 되어 불교 통신대학장, 금강선원 총재까지 겸하게 되었다. 스님의 불교관은 근본불교 경전에 6바라밀을 실천하는 대승사상에 있었다. 누구를 보든지 밥 먹일 줄 알고, 옷 입힐 줄 알며, 잠재워 편안하게 해주셨으며, 멀고 가깝고 간에 교

한국, 일본에까지 이르러 화합을 하지 못함으로써 부처님 얼굴에 분(鬮)칠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잠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처님, 용서하세요.”

한식경을 울고 나니 따라간 사람들도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홍콩에서 아침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태국에 이르러 왕궁사찰을 방문하고 환희 음악회하던 모습, 네팔에 이르러 히말라야의 장관을 보고 탄성을 올리시던 모습, 티베트를 거쳐 북아원에 이르러서는 티베트 난민들을 위로하며 하루 빨리 조국에 돌아가기를 기원해 주시던 모습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몇 해 있다가 태고 보우국사 설립자인 중국 영령사를 찾아 북경 8대처에 이르러 방황하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하루산 석옥청공사에 이르러 긴 한숨을 내리

않도록 당부하시고, 스승을 잘 모시고 제자들을 잘 거느릴 것을 당부하셨다. 대륜화상문도회, 법륜사 조실을 맡으시면서 스승의 일을 계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화양사 창건, 태고종 중앙회관, 태고사 건립을 위해 온갖 성의와 정성을 다 하였다.

장장 20년간 먹을 것만 있어도 부르고 볼 것만 있어도 부르시던 그 잔잔한 음성,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스님의 열반송을 다시 한번 읊어본다.

“네 법계를 보니 본래 성품 없으며/ 생사열반이 도시(都市) 무상이네/ 만일 내게 오고 감 묻는다면/ 구름 걸린 곳에 붉은 해가 서쪽 하늘을 비친다 하리.

망하지 말고 진목 스님 같은 도력을 기르고, 만해 스님의 유신정신을 살려 한국불교를 중흥 해주기 바라네.”

지환 스님 (조계종 기본선원장)

1966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들어가 구도부 활동을 하면서 성철 스님과 광덕 스님 등 당대의 선지식과 인연이 닿아 출가사문의 길에 들어섰다. 범어사에서 광덕 스님을 은사로 1969년 사미계, 1972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그 뒤로 범어사, 해인사, 백양사 운문암, 지리산 쌍계사 등 제방선원에서 참선 정진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리산 금당선원장을 맡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계종 기본선원장 겸 동화사 선원장을 맡고 있다.

현대불교 창간 14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경학습의 새로운 시작!

보고 · 듣고 · 배우는 ~ 휴대용 시청각 학습기 아이센스 T-108 출시!

불법을 공부하시는 사부대중 -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불경 학습기!

염불(念佛), 염송(念誦)모음

- 염송경
 - 반야심경 · 천수경 · 불설아미타경 · 금강반야바라밀경 · 원각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 불설약사여래본원경 · 화엄경 보현행원품 · 화엄경 약장계
 - 초발심자경문 · 무상계 · 의상조사 법성계 · 장엄염불 · 부모은중경 · 백팔대참회문
 - 대불정능염신주 · 지장보살본원경 · 천지팔양신주경 · 보왕삼매론
- 염송의법
 - 송주편 · 예경편 · 불공편 · 천도재 · 49재편

- 제품명 : 아이센스 T-108
- 제품구성 : - 아이센스 · 염송경집 1부 · 염송의법 1부
- 기기크기 : 9.5cm×6cm, 화면크기 : 5cm×4cm, 기기두께 : 0.8cm
- 제품의 특징(개발동기)
의식을 공부하시는 불자들의 종전 학습방법은 책을 본드든지 테이프를 듣는 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었으나, 본 제품은 염송경과 염송의법을 듣고 화면으로 보면서 본문에 대한 해석(한글)과 의식까지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불경을 학습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 제품시양
컨텐츠 캡션 MP4 재생기능, 동영상 촬영, 내장형 카메라, 녹음기능, MP3, 멀티터스킹 · 백그라운드 음악, 내장 1G 플래시, 외장 2G, 320×240 TFT LCD 화면, FM 라디오 내장, 터치패드 사용, 게임기능, 전자수첩, 영 · 일 · 일 · 한자 전자사전
※영어 · 일어 · 중국어도 함께 공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하십시오. **도연아카데미**
문의 및 신청 (02)2666-0676~8
157-2801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01-6 상희빌딩 301호
☎ 전국 대리점 모집 : 010-3785-9398
☎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구성
- 아이센스 T-108
염송경집 1부, 염송의법 1부